

# 파룬궁 반박해 21주년 : 천멸중공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밍후이왕 ] 21년전의 7월 20일, 강택민과 중공은 호상 이용해 억에 달하는 파룬궁수련생에게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란 집단학살성 박해를 실시했다. 온나라의 힘을 다 모여 백여종 고문, 심지어 생체 장기적출하여 진선인(真善忍)을 신앙하는 파룬궁수련생을 탄압했다.

21년후의 오늘날, 천멸중공은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박해에 참여한 중공관리들은 전면적인 청산에 직면했다.



▲ 파룬궁 반박해 21주년을 맞이해 7월 18일 오후 4시, 대만 파룬궁수련생 약 천명이 태복시구에서 “천멸중공, 박해결속”대행진을 거행했다.

## 30여개국 600명의 정계인사는 파룬궁(法輪功) 반박해 지지

올해 7월 18일까지, 유럽, 북미, 중동, 아태와 남미 등 30개 국가와 지역의 600여명 정계 요인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해 대륙 파룬궁수련생들이 받은 중공의 지속적인 박해에 관심을 표하고, 그들이 21년간 평화와 이성적으로 견지한 반박해를 찬송하였으며, 중공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하고, 파룬궁 박해 중단을 요구했다.

대만 입법위원회 왕팅위(王廷玉)는 “파룬궁은 한가지 신앙으로서 장기간 줄곧 박해를 받았다. 대량의 사람들이 목표로 돼(중공은) 이런 박해를 통해 얻은 기술을 이미 천주교, 기독교, 도교와 위구르족 인민에게 응용했다. 때문에 파룬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다.”라고

표시했다.

## ‘오안연맹’은 또 새로운 악인 명단을 접수하여 중공의 인권침해자를 진감하다

2020년 7월, 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 파룬궁 수련생들은 또 한무리 파룬궁 박해 악인 명단을 각각 본국 정부에 제출해 이런 악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번 명단에는 중앙 1급 조러지(赵乐际), 왕모린(王茂林), 멩젠주(孟建柱)가 있고, 현입 각급 ‘610’ 두목, 시위서기, 기율위원회서기, 공안청장, 공안국장, 법원청장, 법관, 감옥 관리국과 감옥의 책임자 등등이 있다.

미 국무부: 중공은 반드시

파룬궁 박해를 중단해야 한다.

파룬궁 박해 21주년을 앞두고 미 국무부 폼페이오장관은 7월 20일 성명을 발표해 파룬궁 박해 중단을 요구했으며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이미 너무 너무 길다,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 미국이 중공 당원과 가족의 입국을 금지하자 구글에서 ‘탈당’ 검색 빈도가 부쩍 늘었다

7월 17일, ‘뉴욕타임스’는 여러명의 소식인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는 한개 중국 공산당 당원과 가족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미국에 입국한 중국공산당원과 그 가족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고, 중공군 측의 인원 (뒷면에 계속)

## 놀라운 생명의 기적



▲ 그림 : 진잉리는 본인이 이해하지 못했던 수수께끼의 답을 모두 '전법륜'에서 얻었다고 말했다.

[밍후이왕] 어렸을 때 진잉리는 얼굴이 누렇고 몹시 여위어 건강 이외에 더 바랄 것이 없었다. 어른이 된 후에는 바빠서 숨 돌릴 틈도 없어, 몸도 마음도 고달팠다.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기는 순간, 진잉리는 하늘에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은 고달프고 짧으며, 부귀영화는 갖고 갈 수 없고, 업적과 명성만이 인간 세상에 남아있을 뿐인데, 과연 이 일생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진잉리에게 어린 시절은 너무나 길었다. 수업이 끝난 후

10분 휴식 시간에 반 친구들은 모두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지만, 그녀만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수업 시작 종소리가 다시 울리기를 기다렸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고, 뼈만 앙상한데 다른 친구들이 하는 놀이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반 친구들과 함께 그네를 타고 줄넘기를 하면 저는 몸이 불편했습니다.”

생명의 무상함이 그녀 곁을 노리고 있어 아름다운 매 시각이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았다. 인생의 끝에 도대체 무엇이 숨어 있

을까? 진잉리 마음에는 알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의 사계절을 보냈다. 진잉리는 졸업후 관광업무를 선택했다. 그는 말했다. “그때 관광 사업은 매우 잘 되어 매일 보는 것이 돈이었지만, 돈으로 제 몸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부귀영화, 명성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런 것보다는 건강한 신체를 갖고 싶습니다. 정상인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놀라운 생명의 기적

삶의 해답을 찾기 위해 진잉리는 채식을 하고, 요가를 배웠으며, 불학(佛學)도 공부했지만, 여전히 미혹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흔두 살이 되던 해, 그녀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상담실에서 책장에 금빛 찬란한 책이 있는 것을 보고는 시선이 이상하게 끌렸다. 여든 살의 고령의 의사는 의미심장하게 그녀에게 말했다. “이 책은 매우 좋은 책입니다!”

신성한 법연 (뒷면에 계속)

(앞면의 계속) 과 국영기업의 주요 책임자의 입국 제한 등이 포함됐다.

중공은 9200만 명의 당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이 금지령에 영향받는 사람은 2억 7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구글에서 ‘탈당’ 검색 빈도가 부쩍 늘었다. “구글추세”를 보면 16일 저녁 8시에 열도는 이미 100의 만점으로 올랐다. 그리고 검색 지역의 대부분은 중국대륙을 가리켰다.

### 천재인화가 괴상하게 빈번해지고 “천멸중공”은 진행중

홍콩에서 미국으로 탈출한 병독학자 엔리멍(閔麗夢)은 인터뷰에서 중공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연합해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난 가장 강력한 병독을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면서 ‘집단 면역’을 바라지 말고, 현재 단계에 백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말라고 했다. 또 이 병독은 매우 특수하고 공포스러운 병독으로 전파 속도가 빨라 현재 세계적으로 600명

당 1명이 감염됐는데, 어느 날 10명 중 한 명이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했다.

올가을에는 전염병 사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외 대홍수, 대규모 메뚜기 피해, 화재, 극단적 기후 등 재난은 사람이 치리지 않으면 하늘이 치리고 천멸중공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공과 멀리하고, 선량에 돌아가야 만이 가장 안전하다. ◇

**(앞면의 계속)** (法緣) 이 맺어졌다. 진잉리는 이 금빛 찬란한 책 ‘전법륜(轉法輪)’을 본 후 무거운 마음과 뒤엉킨 마음의 매듭이 풀어져 구름과 안개를 헤치고 본 푸른 하늘과 같았다. “이 전에 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병이 나에게만 있는지 항상 원망스러웠는데, 책을 다 본 후 마침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행복, 성공과 실패는 모두 인연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자신이 윤회 환생 중에 생생세세 쌓은 업력과 덕의 많고 적음에 따라 조성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책은 저의 많은 미혹을 풀어주었습니다. 생명의 모든 수수께끼의 답을 ‘전법륜’에서 얻었습니다.”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한 ‘전법륜’의 법리는 사람에게 지혜를 불어넣어 여러 해 동안 탐구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가 수련하려는 일념을 가진 후 수년간 몸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도 얼마되지 않아 훌가분하게 내려놓았다. “제 정신과 신체는 모두 개편되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300~400 도 근시가 사라졌으며, 심호흡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아무리 멀리 걸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머리와 사유마저 점점더 뚜렷해졌습니다.”

### 억울함에서 관용으로, 원망에서

### 낙관으로

대법을 수련한지 반년만에 진잉리는 완전히 새로운 신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인생관, 세계관까지 180 도 바뀌었다. 진잉리는 더는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한탄하지 않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 대법에서 선량함과 지혜를 수련해낸 그녀는 문제를 처리할때 과거와 근본적인 구별이 있었다. “예전에 근무 중 불공평한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잉리는 업무 관리자로서 관광객과 자주 접해야 했고 각종 돌발 상황을 만나기도 했다. “원래 출국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가겠다고 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고객들은 늘 출국하지 않으면 수속과 기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을 만나면 불쾌했습니다. 수련 후 저는 그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제가 감당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저에게 이익을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있어 이런 상황에 부딪힌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점차 돈과 이익을 담담하게 보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잉리는 파룬궁을 수련한 후

도덕성이 향상되고 몸이 건강해진 좋은 일을 고객하고 나눴다. 한 대만 사업가는 중국에서 돌아온 후 그녀를 보러왔다.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잉리 씨는 정말 유명하던데요. 우리 상해에 있는 상업연합회 회장이 잉리씨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잉리씨가 파룬궁을 수련하기에 저에게 업무상 어떤 접촉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엄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잉리 씨는 저에게 20 여 년간 서비스했고 일을 매우 잘합니다. 게다가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그녀가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해서 타인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반대합니까? 저는 (업무상) 그녀를 선택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날의 참담함과 자유롭고 편안한 지금을 보면, 그녀의 인생에서 희망을 찾아주고 인간 세상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준 것은 파룬따파였다! “원래, 저는 평생에 몸이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파룬따파에서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



## 당신은 알고 있나요?

- 파룬궁 서적에서 살생과 자살은 모두 죄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진정한 수련인은 살생 혹은 자살, 분신자살을 하지 않는다.
- 2001 년 8 월 14 일, 유엔 회의에서 국제교육개발기구는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중공 당국의 ‘국가 테러주의 행위’ 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영상 분석 결과 정부가 사건 일체를 연출했음이 드러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중공대표는 한 마디 말도 못했다.
- 2003 년 11 월 8 일, NTD TV 에서 제작한 “천안문 분신자살” 진상기록영화 ‘위화’ 는 제 51 회 콜럼버스 국제 영화제의 명예 상을 수상했다. ◇

# 연변 박해 소식

# 노교소, 세뇌반 박해를 받았던 판밍란은 또 무고하게 7년 징역형을 선고받다

[ 밍후이왕 ] 길림성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판밍란여사는 2020년 1월 16일 좌우 용정시 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7월말 가족은 그가 7년 불법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을 받았다.

판밍란은 1997년 6월부터 파룬궁수련을 하여 신심의 수익을 받았다. 1999년 7월 중공사당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후 2000년 10월 판밍란은 북경으로 가서 파룬궁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천안문광장에서 경찰에 의해 납치된후 북경 주재 연길판사처에 의해 연길로 돌아간 후 연길시 소영자 파출소에서 서씨 소장에게 한차례 폭행을 받고, 4~5일간 '작은방'에 갇혀 박해받은 후, 연길 구치소에 한달간 불법감금 당하고, 2000년말에 3년 불법노교를 선고받고, 장춘 헤이주이즈노동교양소(黑嘴子劳教所)에서 박해 받았다.

판밍란은 헤이주이즈노동교양소에서 "전향"을 거부한 이유로 장기간 강제로 노역박해를 받았다. 새벽부터 심야까지 매일 20시간 노동을 했다. 한번은 그가 일이 끝나기전 왕씨 경찰에 의해 전기곤봉충격을 받았다.

4달후 판밍란은 구타받아 극히 허약해졌고 노교소에서는 책임질까 두려워 그를 석방했다.



고문시연 : 전기곤봉으로 충격

2011년 2월 15일, 판밍란은 용정시 국보대대에 의해 납치돼 광명파출소 경찰 4명이 한조로 돌아가며 그를 심사했다. 2박 2일동안 눈을 감지 못하게 하고, 고문구타를 했다: 뺨을 때리고, 신발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두손을 수갑으로 몸뒤에 고정하고 힘껏 위로 올리는 동시에 발로 허리를 찼다.



고문시연 : 뒷짐결박

2011년 2월 17일, 저녁, 판밍란은 화룡구치소에 끌려가 불법감금 당했다. 그는 박해받아 엄청난 심장병현상이 나타났다가, 집식구들이 그에게 보석치료를 신청했다. 3월, 판밍란은 구치소에서 세뇌반으로 이송돼 계속해서 박해 받았는데 오른쪽 다리가 많이 야위어져 힘을 쓸수없게돼 걸을때면 몸은 비뚤어져 있었다. 4월 23일야 집에 돌아왔다.

2014년 10월 15일, 판밍란은 또 보름동안 구치소에 감금됐다. 잔혹한 박해로 인해 그에게 엄청난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 보석치료를 귀가했다.

2018년 6월 11일 오후, 판밍란은 연길시 대천성에서 진상을 알릴때 경찰에게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하고 후에 1년 보석치료를 받았다.

2019년 3월 7일 오후, 연길시公安국은 전화로 판밍란을

교란해 그녀더러公安국에 다녀가라고 지시했다.

2020년 1월 10일좌우 판밍란은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 1월 20일, 가족은 그가 경찰에 의해 납치됐다는 소식을 받았다. 7월말, 그가 7년 불법징역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받았다. ◇

## ■ 보충 ■

### 훈춘시 4명 파룬궁수련생 납치상황

2020년 7월 15일, 저녁 8시넘어 훈춘시公安국경찰은 훈춘시 4명 파룬궁수련생 리린푸(李林普)와 탄리롱(谭丽荣)부부, 싱홍산(邢宏山)과 판서우화(潘守花)부부의 자택으로 침입해 그들을 납치했다. 동시에 경찰은 파룬궁서적 몇 권을 강탈했다.

리린푸는 당일 늦은밤에 석방되고, 기타 3명은 신체검사서서 혈압이 260을 초과해 연길에 보내지 않고 17일 오후에 풀려났다. 7월 16일, 탄리롱은 연길시로 보내졌고, 경찰은 그를 15일간 구속 한다고 말했다.

이번 납치사건에서 징허(靖和) 파출소 경찰도 참여했다.

### 연길시 루이커룽(芮克容) 납치상황

8월 1일, 루이커룽은 민중에게 진상을 알려 악의적인 고발을 당해 저녁 7시좌우 연길시 하남파출소에 납치돼 8일간 구류 당했다. ◇